

Research Center

#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터키의 대응

■ 기업/산업분석

롯데제과, 액트로, 오파스넷

■ 경제/투자전략/글로벌자산관리

투자전략 Note: [EM, 중남미] 위기의 역사(1)

크레딧 Note: QNB 정기예금 ABCP와 대터키 간접 익스포저

채권전략 Weekly: Bond Portfolio Consul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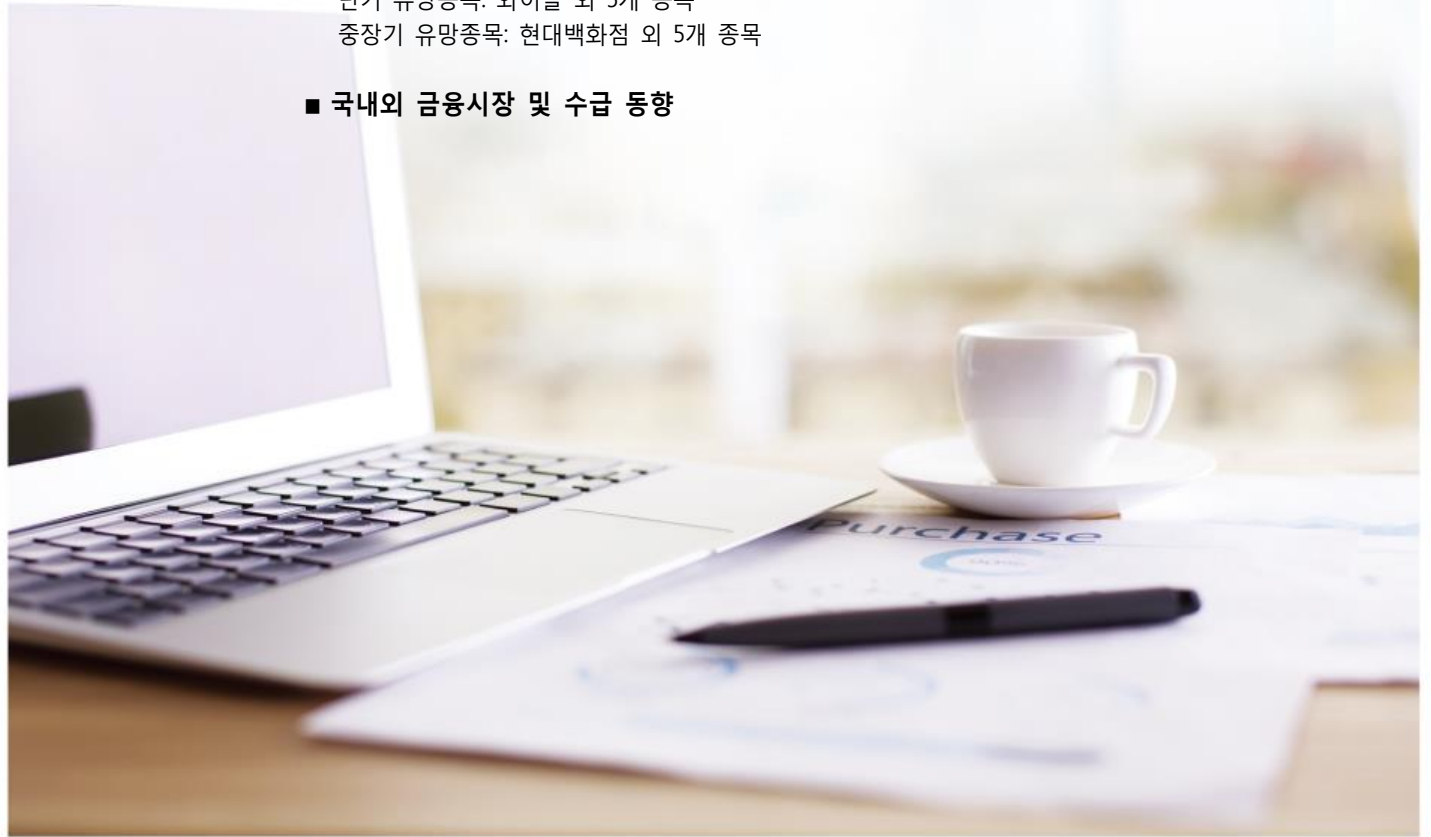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와이솔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백화점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해외채권 | 안재균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경제분석 | 박정우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철화  
채권분석 | 오창섭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이소연  
크레딧분석 | 김기명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ETF | 배호진

자산배분전략 | 정현중  
글로벌기업 | 정희석

## 터키의 대응

터키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리라화는 반등에 성공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환율 가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 리라화는 반등했지만 불확실성은 상존

긴급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리라화 가치는 약세 지속

터키 중앙은행은 13일에 긴급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외환담보 보증금 한도 상향, 외화예금 한도 상향, 리라화 및 비핵심 외화부채에 대한 기준을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운데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은행 지분의 50%로 축소했다. 한편 외화예금 전환 및 동결과 같은 자본 통제에 대한 설은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리라화 가치는 약세를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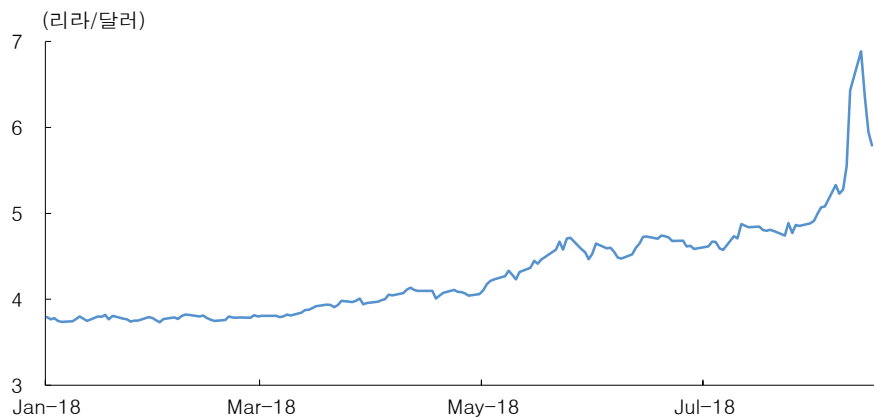
터키 정부의 추가 조치 및 카타르의 직접 투자 소식으로 리라화는 반등

따라서 터키 정부는 다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다. 15일에는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축소하지 이틀 만에 다시 25%로 축소했다. 그리고 소비자 대출에 대한 최대 만기기간을 줄이고 신용카드 할부에 한계를 두면서 가계 소비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카타르가 15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약속하면서 리라화는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및 브린슨 목사 석방 요구를 거부

그러나 동시에 터키는 주류와 승용차, 담배, 화장품, 쌀, 석탄 등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브린슨 목사 석방 요구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림 1] 리라화 가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1> 터키의 대응

목적	주요 조치
유동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담보 보증금 한도를 72억유로에서 200억유로로 상향 조정</li> <li>- 리라화 거래에 대한 담보 할인율을 종류와 만기에 따라 조정</li> <li>- 1주일 레포(repo) 입찰과 함께 전통적인 레포, 예금 판매 입찰도 91일 만기 내에서 실시</li> <li>- 높은 유동성 수요 등을 고려해 6~10일 만기 레포 입찰을 1회 이상 시행</li> <li>- 외화예금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상향하는 방침을 고려</li> <li>-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외화 유동성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li> <li>- 은행들의 리라화 지급준비율을 모든 만기에서 250bp 인하</li> <li>- 비핵심 외화부채(non-core FX liabilities) 기준율의 경우 최대 400bp 인하</li> </ul>
환율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 은행과 외국인과의 스와프, 스와프 유사 거래를 은행 지분의 25%까지로 제한</li> <li>- 지난 13일 거래 한도를 지분 50%까지 제한한 데 이어 이를 만에 절반 수준으로 다시 줄임</li> <li>- 은행권의 스와프 거래 한도를 제한하면 외환시장에서 리라화에 대한 공매도 세력이 위축됨</li> <li>-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시 고정환율을 적용</li> <li>- 일부 위험 부채를 상환 가능 부채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li> </ul>
인플레이션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대출 최대 만기기간을 축소</li> <li>- 신용카드 할부에 한계를 부과</li> <li>- 가계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 함</li> </ul>
미국에 보복 관세 및 송환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와 승용차, 담배, 화장품, 쌀, 석탄 등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 인상</li> <li>- 자동차에는 120%, 주류에는 140%, 잎담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li> <li>- 이에 따라 외환위기로 출발했던 터키상황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다시 확산양상</li> <li>- 미국의 브런슨 목사 석방 요청을 거부</li> </ul>

자료: 각종 언론, 한국투자증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터키

이처럼 터키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이었다.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기준을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고 스와프 거래 제한을 통해 투기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든 상황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리라화는 반등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조치들은 터키 경제의 누적된 경상적자, 감소하는 외환보유고 등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조치라기보다는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리라화 약세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상은 긴급 시장안정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2> 터키 경제지표 발표 및 통화정책회의 일정

시기	내용
2018년 8월 17일	8월 소비자대지수
2018년 8월 27일	8월 설비가동률
2018년 8월 29일	7월 무역수지
2018년 9월 3일	8월 제조업 PMI
2018년 9월 3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8년 9월 10일	2분기 GDP 성장률
<b>2018년 9월 13일</b>	<b>통화정책회의</b>
2018년 9월 14일	7월 경상수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게다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됨

무엇보다도 터키와 미국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류, 승용차, 담배 등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고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터키가 미국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보다는 오히려 맞불을 놓으면서 백악관 역시 브런슨 목사가 석방된다 하더라도 터키에 대한 관세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 오히려 격화되면서 두 국가의 관계 개선은 아직 요원하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금융시장 안정의 필수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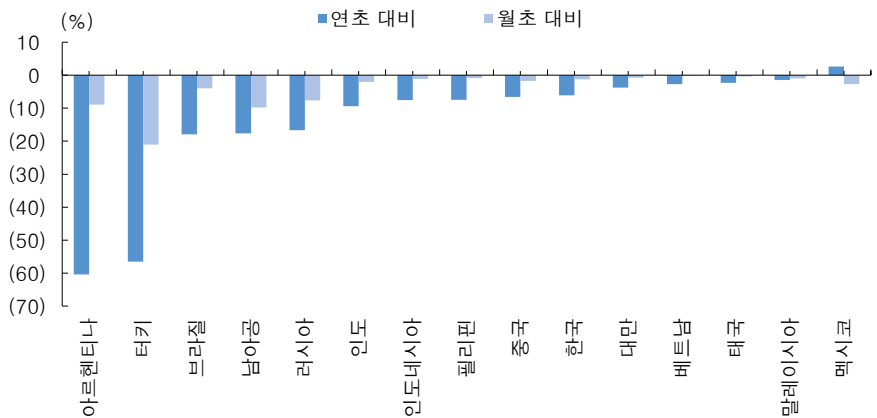
지난 자료(‘터키, 러시아, 이란 그리고 미국’, 8/13)에서도 언급했듯이 취약한 터키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터키에 대한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물가 상승과 환율 가치 하락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터키발 불확실성은 언제든 다시 부각될 수 있다.

터키 사태로 인해 신흥국 통화는 약세

###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신흥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터키 중앙은행은 13일에 긴급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외환담보 보증금 한도 상향, 외화예금 한도 상향, 리라화 및 비핵심 외화부채에 대한 기준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운데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은행 지분의 50%로 축소했다. 한편 외화예금 전환 및 동결과 같은 자본 통제에 대한 설은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리라화 가치는 약세를 지속했다.

[그림 2] 주요 신흥국 통화들의 달러 대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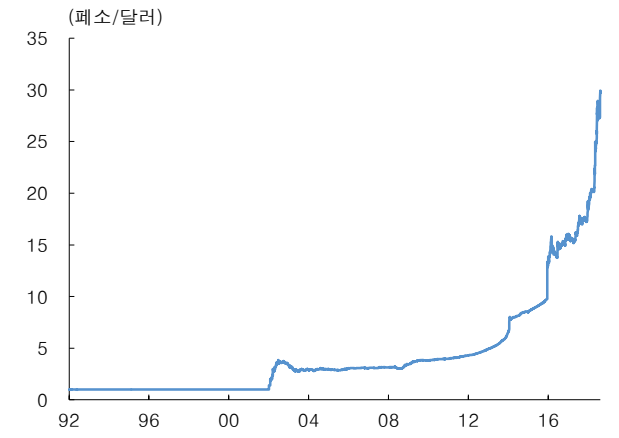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이를 타개하고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금리를 500b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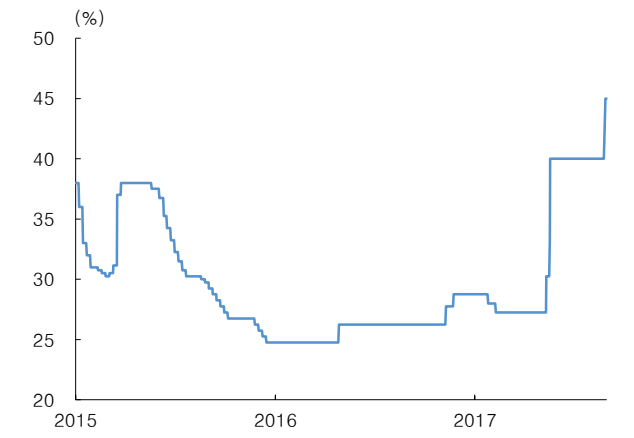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 이후 신흥국 환율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를 제한하기 위해 몇몇 신흥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가장 발 빠르게 대처했다.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0%에서 45%로 인상하면서 “현재의 대외 사정과 그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칠 타격에 대비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림 3] 아르헨티나 페소화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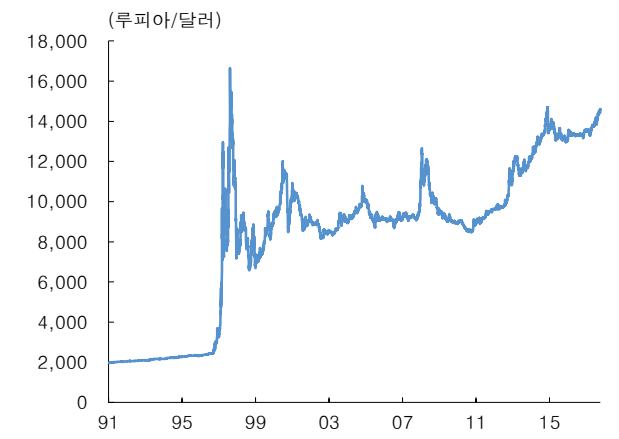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25b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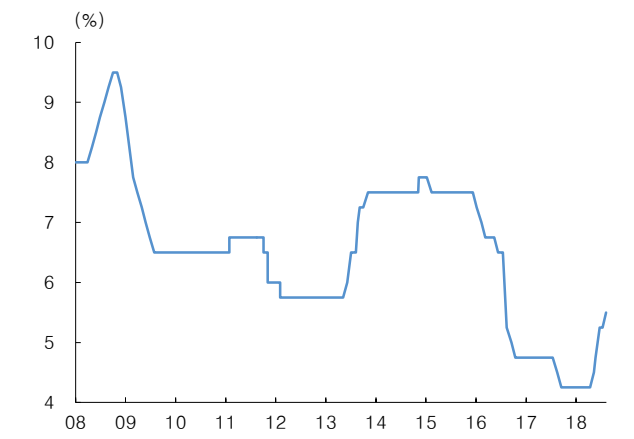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0.25%p 인상했다. 지난 5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로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GDP 대비 2분기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1분기(2.2%) 대비 크게 악화된 가운데 루피아화가 약세를 보이고 터키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금리 인상 이유로 제시했다.

[그림 5]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

사실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가 있기 전부터 필리핀, 멕시코, 인도 등의 신흥국들은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터키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신흥국 통화 가치에 대한 하방압력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분간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표 3> 향후 주요 신흥국 통화정책회의 일정**

시기	국가	기준금리(%)	달러 대비 통화가치 변화율 (YTD, %)	달러 대비 통화가치 변화율 (MTD, %)
2018년 9월 5일	칠레	2.50	(8.3)	(4.7)
2018년 9월 5일	말레이시아	3.25	(1.4)	(1.0)
2018년 9월 5일	폴란드	1.50	(9.3)	(4.2)
2018년 9월 12일	아르헨티나	45.00	(60.4)	(8.9)
2018년 9월 13일	터키	17.75	(56.6)	(21.0)
2018년 9월 14일	페루	2.75	(2.5)	(1.4)
2018년 9월 14일	러시아	7.25	(16.7)	(7.6)
2018년 9월 19일	태국	1.50	(2.3)	(0.4)
2018년 9월 19일	브라질	6.50	(17.9)	(3.9)
2018년 9월 20일	남아공	6.50	(17.6)	(9.7)
2018년 9월 27일	인도네시아	5.50	(7.5)	(1.1)
2018년 9월 27일	대만	1.38	(3.8)	(0.7)
2018년 9월 28일	콜롬비아	4.25	(2.2)	(5.6)
2018년 10월 5일	멕시코	7.75	2.6	(2.6)
2018년 10월 5일	인도	6.50	(9.4)	(2.0)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롯데제과(280360)

## 아름보다는 과실이 많아지는 시기로

인도 빙과업체 실적 개선으로 별도 법인 실적 악화 상쇄  
 구조조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하반기에는 많아질 것  
 빙과 시황 급 호전, 매장 사업 정리 부담도 완화돼 주식 매수 적기

### Facts : 해외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우려보다는 선방

회사 분할로 전년동기 숫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의 사업회사 구조를 감안할 때 한투증권이 추정하는 2017년 2분기 실적대비 이번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 10.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법인의 실적은 구조조정 및 유통 채널의 재고 축소 움직임으로 예상대로 부진했는데, 지난해 말 인수한 인도의 빙과업체 하브모어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연결 실적은 우리 추정치를 소폭 상회했다. 별도 법인의 매출액은 변경된 회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전년동기대비 2.5% 감소, 영업이익은 30.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푸쉬 마케팅을 줄이고 있는 건과 매출액이 아직은 역성장하고, 적자사업인 매장형 베이커리 및 건강식품부문의 사업 철수 영향으로 외형이 축소되며, 구조조정 초기 영향으로 고정비 부담은 늘어난 모습이다.

### Pros & cons : 구조조정의 초기 부담 완화, 해외는 지역별 혼조세

별도 법인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1분기(-46.3% YoY)에 비해서는 줄었다. 건과의 매출액 감소폭도 1분기보다는 작은 2~3% 수준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올해부터 푸쉬 마케팅을 자제하고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경영 전략을 선회했다. 이로 인해 특히 건과부문에서 매출액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구조조정 초기임으로 관련 고정비 부담은 아직 큰 상황이다. 또 적자 매장사업 철수로 인테리어 재건 비용 등 일회성 비용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많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기 부정적 영향은 줄어들고 긍정적 영향은 서서히 커질 것이다. 현재 지주회사 소속이지만 연내에 롯데제과로 지분이 현물 출자될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은 이번 분기에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은 다행히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파키스탄이 지난해와 올해 초에 가동되기 시작한 파이와 껌공장 감가상각비와 관측비 증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했고, 대체로 현지 통화가 절하되었다.

하회    부합    **상회**

영업이익의 한투 추정치 대비를 의미

## 매수(유지)

목표주가: 250,000원(유지)

### Stock Data

KOSPI(8/14)	2,259
주가(8/14)	155,500
시가총액(십억원)	655
발행주식수(백만)	4
52주 최고/최저(원)	191,500/145,0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1,175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31.8/26.7
주요주주(%)	롯데알미늄 외 13인 68.1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LLC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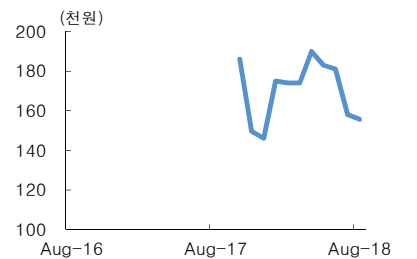
### Valuation 지표

	2017A	2018F	2019F
PER(x)	1,021.0	11.6	5.7
PBR(x)	2.5	0.4	0.4
ROE(%)	0.2	4.8	7.3
DY(%)	0.2	2.3	3.2
EV/EBITDA(x)	44.6	5.8	3.7
EPS(원)	143	13,450	27,200
BPS(원)	58,085	362,892	385,068

###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3)	(6.9)	-
KOSPI 대비(%p)	(4.1)	(0.2)	-

### 주가추이



자료: WISEfn

### 이경주

kjlee@truefriend.com



## Action : 빙과 호조에 일회성 비용도 줄어들 것. 본격적인 주식 매집 시기

최근 무더위로 빙과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내 빙과 1위업체인 동사도 7월 빙과 매출액이 10% 가깝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빙과 판매 호조 현상은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근본적으로 빙과의 대체재대비 가격 경쟁력이 강화됐고, 가격을 정상화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ASP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또한 올해의 폭염으로 유통 재고가 상당히 소진될 것으로 보여 내년까지 제조사의 빙과 판매량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빙과 이외에도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정책 전환으로 인한 초기 수익 악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동사의 투자포인트이다. 하반기에 건과 매출액은 일부 제품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년동기 수준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식품 매장은 거의 다 철수돼 매장형 사업 정리로 인한 비용 부담이 올해 상반기를 정점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에는 지주사로부터 해외 제과사 지분도 출자받아 장기 성장 동력도 강화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본격적인 이익 증가 시점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며 주식 매수를 추천한다.

〈표 1〉 2분기 연결 실적 및 추정치

(단위: 십억원, %)

	2Q18	2Q17	YoY	1Q18	QoQ	2Q18F	차이
매출액	438.0	445.0	(1.6)	401.3	9.2	434.7	0.8
매출총이익	158.2	173.1	(8.6)	137.0	15.5	166.6	(5.1)
판매비	138.5	151.1	(8.3)	125.7	10.2	150.0	(7.6)
영업이익	19.7	22.0	(10.5)	11.3	74.2	16.7	17.8
세전이익	16.7			2.2	643.4	13.7	21.5
당기순이익	12.6			2.0	527.5	10.3	22.8
매출원가율	63.9	61.1		65.9		61.7	
판매비율	31.6	34.0		31.3		34.5	
영업이익률	4.5	4.9		2.8		3.8	

주: 2Q17 실적은 분할로 공시된 공식적인 수치가 없어 현재의 사업회사 구조로 한투증권이 추정한 수치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2〉 2분기 별도 법인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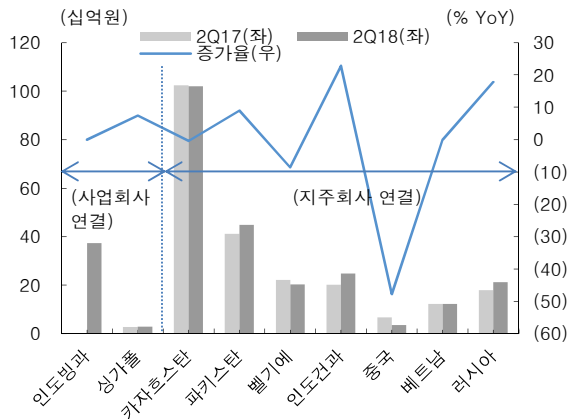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2Q18 (회계 변경 후)	2Q17 (회계 변경 후)	YoY
매출액	403.1	413.4	(2.5)
영업이익	14.5	20.9	(30.6)
매출원가율	35.5	36.4	
판매비율	33.9	31.8	
영업이익률	3.8	5.1	

자료: 롯데제과,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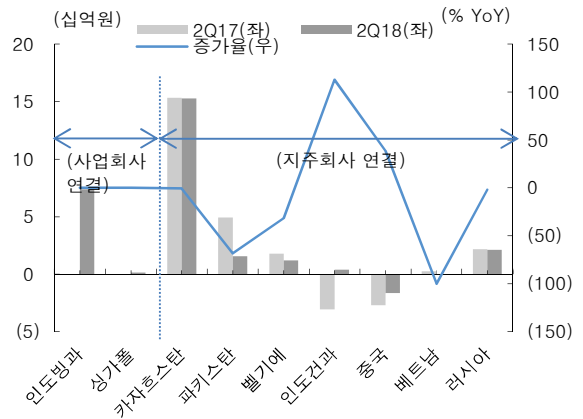


[그림 1] 2분기 지역별 매출액(환율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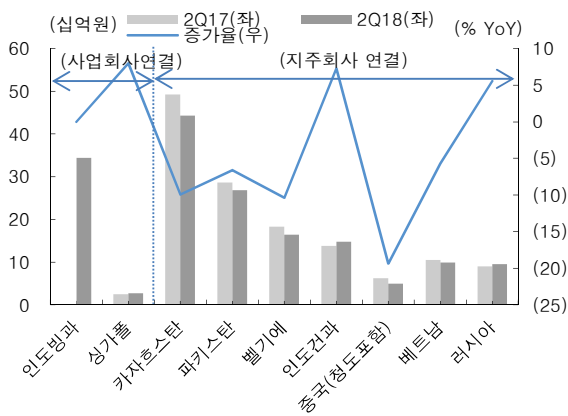
주: 인수 시점 환율로 고정  
자료: 롯데제과, 한국투자증권

[그림 2] 2분기 지역별 영업이익(환율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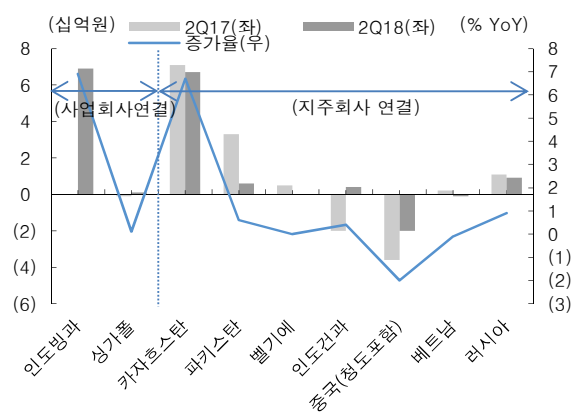
주: 인수 시점 환율로 고정  
자료: 롯데제과, 한국투자증권

[그림 3] 2분기 지역별 매출액(환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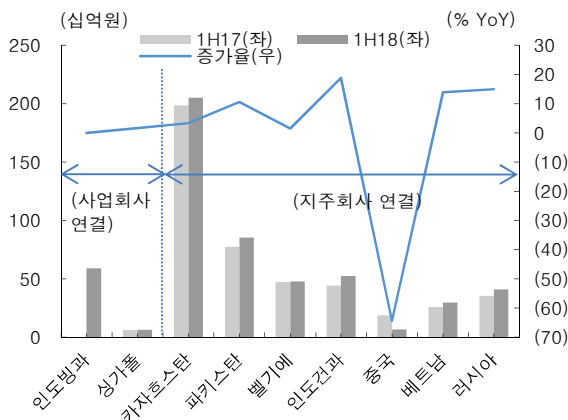
주: 분기 실제 환율 적용  
자료: 롯데제과, 한국투자증권

[그림 4] 2분기 지역별 영업이익(환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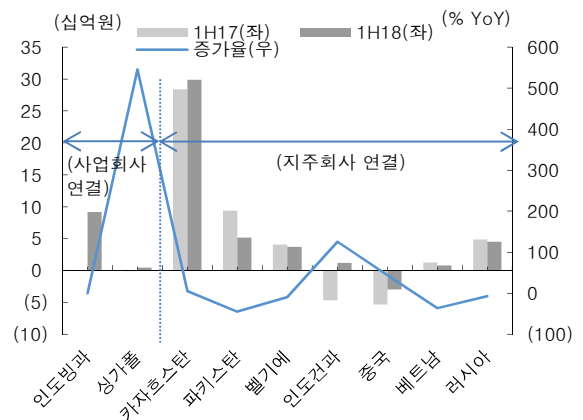
주: 분기 실제 환율 적용  
자료: 롯데제과,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상반기 지역별 매출액(환율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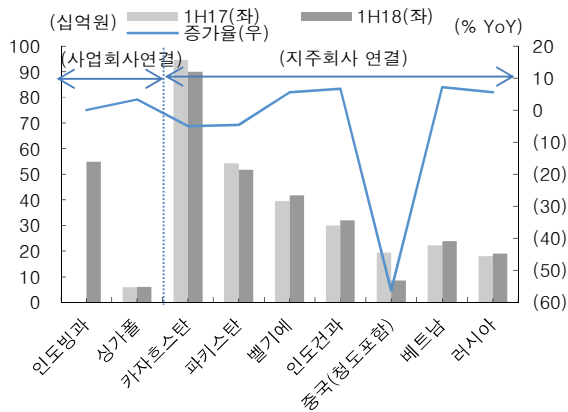
주: 인수 시점 환율로 고정  
자료: 롯데제과,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상반기 지역별 영업이익(환율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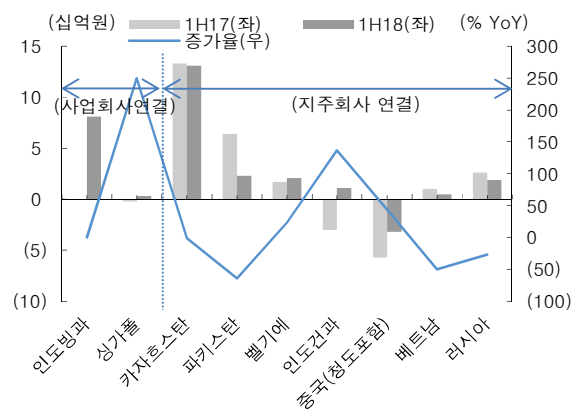
주: 인수 시점 환율로 고정  
자료: 롯데제과,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상반기 지역별 매출액(환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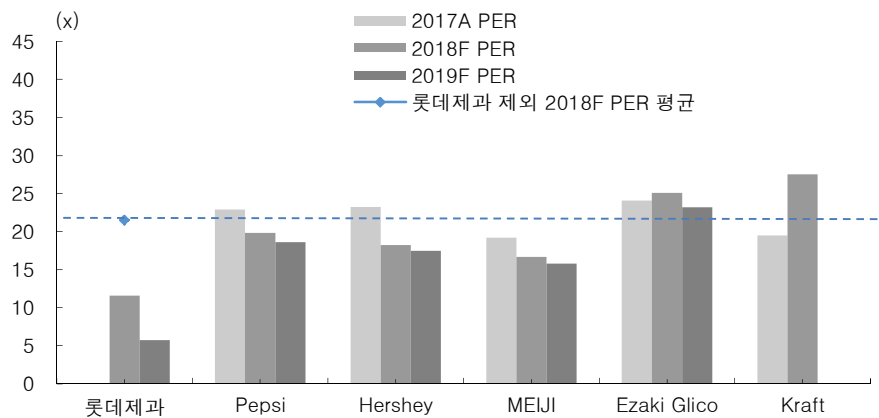
주: 분기 실제 환율 적용  
자료: 롯데제과,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상반기 지역별 영업이익(환율 변동)



주: 분기 실제 환율 적용  
자료: 롯데제과, 한국투자증권

[그림 9] Global peer와의 비교



주: 8월 14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주식회사 롯데제과는 1967년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1974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음. 이후 2018년 10월에 투자부문을 롯데지주로 이전하고 별도법인과 일부 해외 제과사 지분만을 보유한 채 신규 상장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음. 영위사업은 껌, 캔디, 비스킷, 빙과류, 초콜릿, 그리고 그 밖에 건강식품사업 및 제빵사업임, 롯데지주 귀속 해외사를 포함할 경우 현재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64개 국가에 껌, 캔디, 비스킷, 초콜릿 등의 제과 및 빙과류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서울에 위치한 본사를 포함하여 국내에 총 8개 생산공장과, 유럽, 인도, 중국 등에 21개의 해외공장과 8개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 대표제품으로는 초코파이, 빼빼로, 월드콘 등이 있음.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7A	2018F	2019F	2020F
유동자산	532	754	826	863
현금성자산	66	172	169	19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1	267	308	319
재고자산	163	229	265	266
비유동자산	1,375	1,860	1,944	1,995
투자자산	36	86	84	89
유형자산	1,121	1,569	1,614	1,648
무형자산	198	181	217	228
자산총계	1,907	2,614	2,770	2,857
유동부채	536	571	613	59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8	271	337	354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152	132	112	92
유동성장기부채	151	131	121	111
비유동부채	544	514	534	524
사채	379	359	339	319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2	0	0	0
부채총계	1,080	1,085	1,148	1,123
지배주주지분	825	1,527	1,620	1,732
자본금	2	4	4	4
자본잉여금	820	1,478	1,478	1,478
기타자본	1	1	1	1
이익잉여금	3	45	138	250
비지배주주지분	2	2	2	2
자본총계	827	1,529	1,622	1,734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7A	2018F	2019F	2020F
영업활동현금흐름	31	129	235	240
당기순이익	2	57	114	136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9	79	91	91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자산부채변동	(0)	(8)	29	13
기타	10	1	1	0
투자활동현금흐름	(141)	(606)	(167)	(145)
유형자산투자	(17)	(527)	(135)	(126)
유형자산매각	2	0	0	0
투자자산순증	40	(50)	2	(3)
무형자산순증	(0)	16	(36)	(11)
기타	(166)	(45)	2	(5)
재무활동현금흐름	96	583	(71)	(74)
자본의증가	0	660	0	0
차입금의순증	100	(62)	(50)	(50)
배당금지급	0	(1)	(15)	(21)
기타	(4)	(14)	(6)	(3)
기타현금흐름	(0)	0	0	0
현금의증가	(14)	106	(3)	21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405	1,910	2,409	2,530
매출원가	246	1,287	1,622	1,694
매출총이익	159	623	788	836
판매관리비	151	524	613	635
영업이익	8	99	174	201
금융수익	1	4	5	5
이자수익	1	4	5	5
금융비용	3	20	18	17
이자비용	3	20	18	16
기타영업외손익	(2)	(8)	(10)	(10)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1	1
세전계속사업이익	3	75	152	181
법인세비용	1	19	38	45
연결당기순이익	2	57	114	136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	57	114	136
기타포괄이익	(1)	0	0	0
총포괄이익	1	57	114	136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	57	114	136
EBITDA	27	178	266	293

주요투자지표

	2017A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EPS	143	13,450	27,200	32,329
BPS	58,085	362,892	385,068	411,668
DPS	280	3,500	5,000	5,70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NM	371.9	26.1	5.0
영업이익증가율	NM	1,076.4	76.2	15.5
순이익증가율	NM	2,689.7	102.2	18.9
EPS증가율	NM	9,331.1	102.2	18.9
EBITDA증가율	NM	555.6	49.4	10.3
수익성(%)				
영업이익률	2.1	5.2	7.2	8.0
순이익률	0.5	3.0	4.7	5.4
EBITDA Margin	6.7	9.3	11.0	11.6
ROA	0.1	2.5	4.2	4.8
ROE	0.2	4.8	7.3	8.1
배당수익률	0.2	2.3	3.2	3.7
배당성향	58.1	26.0	18.4	17.6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588	374	331	257
차입금/자본총계비율(%)	82.8	40.7	35.3	30.1
Valuation(X)				
PER	1,021.0	11.6	5.7	4.8
PBR	2.5	0.4	0.4	0.4
EV/EBITDA	44.6	5.8	3.7	3.1

# IPO: 액트로(290740)

Not rated

## 스마트폰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부품 생산 기업

### 기업개요

- 12년에 설립된 스마트폰 및 소형 모바일기기 탑재용 고사양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OIS, IRIS, AF Actuator) 및 관련 자동화 시스템 제조, 판매 기업
- 삼성전기 모듈사업부의 1차 벤더이며 최종 고객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OPPO, VIVO 등의 스마트폰 제조사
- 17년 매출액은 중화권 신규 거래선 확보로 910.3억원(+170.3% YoY), 영업 이익은 142.5억원(+463.2% YoY)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성장
- 17년 제품별 매출비중은 AF 60.9%, OIS 33.8%, IRIS 1.2%, 기타 4.1%

### Stock Data

확정 공모가(원)	20,000
예상 시가총액(십억원)	100.0
공모 주식수(백만)	1.2
예정 공모금액(십억원)	24.0
공모 후 총 주식수(백만)	5.0
상장 예정일	8월 28일
주요주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7.8 기관투자자 및 기타주주 37.5

### 18년 실적은 IRIS매출 증가가 이끌 전망

- IRIS Actuator란, 렌즈를 통해 카메라 모듈 내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로 DSLR의 조리개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제품
- IRIS Actuator를 탑재하면 빛의 양을 조절해 어두운 피사체를 더 밝게 촬영하거나 밝은 피사체를 더 어둡게 촬영할 수 있어 사진의 품질이 뚜렷하게 개선됨
- 최종 고객사의 신규 플래그쉽 모델에 IRIS가 채택되면서 18년 1분기 IRIS매출액 142억원 신규로 발생(매출 비중 17년 1.2%에서 1Q18 30.6%로 상승)
- 관련 제조 공정 설비를 자체 제작 및 생산하고 있고 검사기도 상용화한 상태로 최종 고객사의 보급형 모델 채택, 중화권 모델로의 납품 확대를 위해 노력 중

### 공모가는 18년 예상실적 기준 PER 7~8배 수준

- 공모희망가액 밴드는 peer 그룹의 최근 4개 분기(2Q17~1Q18) 평균 PER 12.8배에서 37.1~47.5% 할인율을 적용한 20,000~24,000원이었으며 수요예측결과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20,000원으로 확정
- 18년 가이드는 매출액 1,300억원(+42.8% YoY), 영업이익 200억원(+40.3% YoY)
- 17년 연결기준 삼성전기향 매출비중 99.2%로 단일 고객 집중도 매우 높음
- 19년 3월 완공 예정인 베트남 2공장을 기반으로 해외 매출처 다변화 계획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53.2%인 266만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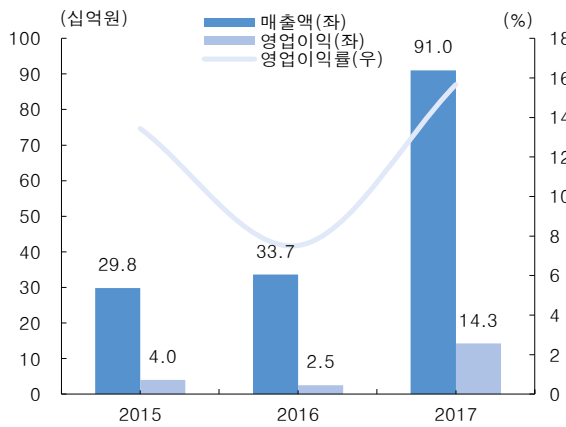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29.8	4.0	3.2	635	NM	NM	NM	NM	NM	NM	NM
2016A	33.7	2.5	0.8	355	(44.1)	NM	NM	NM	NM	16.0	NM
2017A	91.0	14.3	7.1	2,875	709.8	NM	NM	NM	NM	43.0	NM

주: 연결기준

이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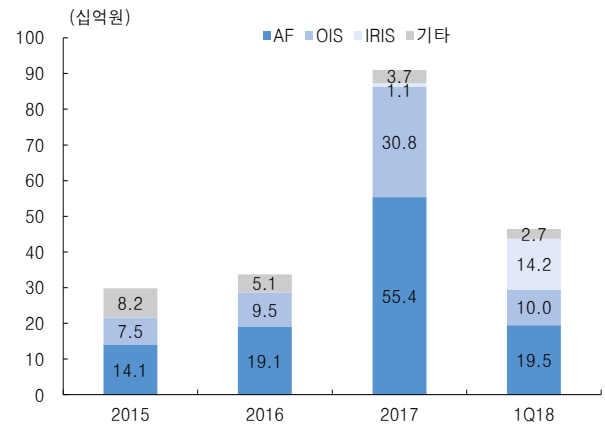
nylee@truefriend.com

[그림 1] 연간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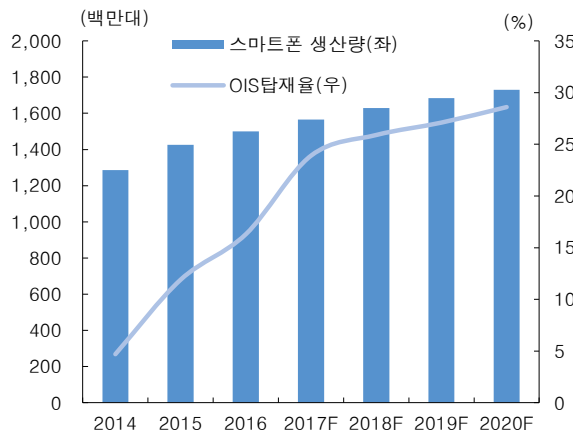
자료: 액트로,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액트로,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스마트폰의 OIS탑재율 전망



자료: Techno System Research, 액트로,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주요 제품과 역할

제품	역할
OIS Actuator	손떨림 보정을 통한 사진화질 및 품질 개선용 부품
IRIS Actuator	카메라 조리개처럼 카메라 모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
AF Actuator	단거리 구간 자동 초점 구현, 사진의 번짐 현상 개선 및 방지
성능 평가기	OIS, CLAF, IRIS, AF Actuator의 기구적 사양, 성능 검사 및 평가

자료: 액트로, 한국투자증권

# IPO: 오파스넷(173130)

Not rated

##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

### 기업개요

- 04년에 설립된 네트워크 통합(NI, Network Integration)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기업으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예정
- 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통신 인프라 및 기술분석을 통한 통신 환경 기획 및 설계, 납품,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Cisco, Citrix, HPE 등)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여 고객사의 사업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운영 용역을 제공
- 17년 매출비중은 네트워크구축(네트워크, SW및 라이선스 등) 60.3%, 유지보수 30.2%, 기타 9.5%
- 17년 기준 총 327개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연매출 5억원 이상인 기업인 28개사. 주요 고객사로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아모레퍼시픽, 코스콤 등이 있음

### Stock Data

확정 공모가(원)	11,000
예상 시가총액(십억원)	44.2
공모 주식수(백만)	1.0
예정 공모금액(십억원)	11.0
공모 후 총 주식수(백만)	4.0
상장 예정일	8월 24일
주요주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7.4 기타주주 16.3

### CIC System 도입으로 차별화된 성장성 확보

- CIC(Company In Company) 시스템이란, 각 영업본부별로 별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사업 추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오파스넷의 내부 제도로 18년 2분기 기준, 9개 영업본부 체제로 운영 중
- 의사결정 효율화, 책임경영 및 관리, 정확한 성과보상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회사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성장성을 보유한 조직을 사업본부 형태로 신규 영입하고 기존 본부의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평가 및 관리하는 유연한 본부 운영 가능

### 공모가 상단 돌파

- 공모희망가액 밴드는 peer 그룹 평균 PER 15.7배에서 19.1~29.1% 할인한 8,500~9,700원으로 제시되었지만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돌파하며 11,000원으로 확정되었음
- 18년 가이드는 매출액 850억원(+19.0% YoY), 영업이익 40억원(+15.2% YoY)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72.6	3.0	1.7	603	NM	NM	NM	NM	NM	NM	NM
2016A	71.6	4.2	2.1	747	23.8	NM	NM	NM	NM	3.3	NM
2017A	71.4	3.5	3.1	1,061	42.0	NM	NM	NM	NM	43.0	NM

주: 별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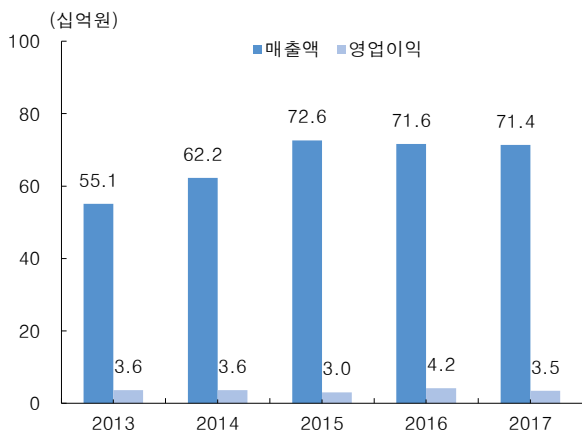
이내에

nylee@truefriend.com

### 5G투자 확대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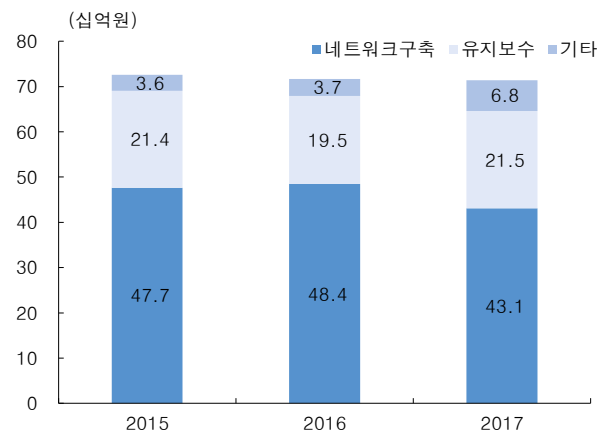
- 5G가 도입되면 백홀(backhaul), 백본(backbone), 데이터센터 등 관련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라우터, 스위치 등 장비의 용량과 수가 4G대비 큰 폭으로 늘어날 것
- 오파스넷은 11년 Cisco SI Gold 파트너로 지정되며 제품 공급과 더불어 구축 및 운용에 대한 기술영업력을 인정받았음
- 17년 네트워크 매출액 360억원 중 179억원(49.7%)이 SK텔레콤 계열사로부터 발생. 주요 고객사의 5G투자 확대의 수혜 가능
- 5G 활성화에 따라 향후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에 기반한 네트워크 사업 확장 예상
- 오파스넷은 시장 변화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망분석, 통합관리, 자동화 등 부가 솔루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긍정적

[그림 1] 연간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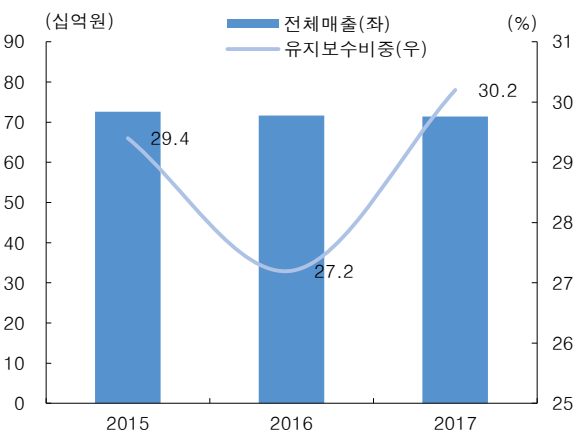
자료: 오파스넷,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부문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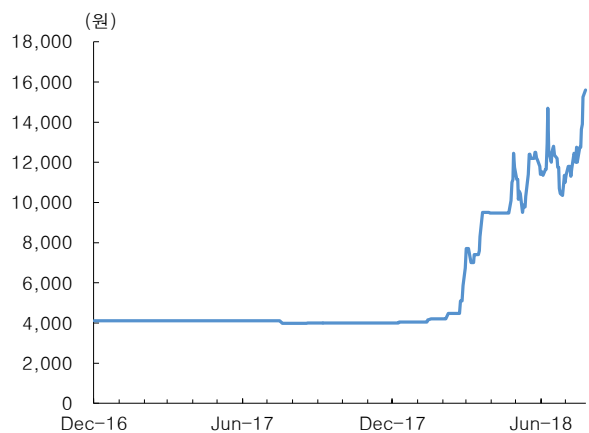
자료: 오파스넷,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유지보수매출 비중



자료: 오파스넷,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오파스넷 주가동향(코넥스)



자료: 오파스넷, 한국투자증권



## [EM, 중남미] 위기의 역사(1)

금융위기는 신흥국에서 주로 발생. 연준의 긴축으로 펀더멘털이 훼손되기 때문  
1982년 중남미 금융위기 발생. 금리 상승으로 외채 상환에 부담스런 환경 직면  
위기 해결 과정에서 IMF는 구제안 제시. 다만 근본적 해결책으로 작용하지 못함

### 중남미 금융위기: 외채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금융위기는 매번 반복된다. 잊을 만하면 나타난다. 요즘엔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안타까운 건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대부분 신흥국이란 점이다. 1980년 이후 발생했던 위기의 역사가 이를 방증한다. 진행 과정도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어떤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 미 연준은 통화긴축을 시도하고, 그 결과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이 흔들리면서 금융위기가 확산된다.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복기할 경우, 1982년에 발생했던 중남미 금융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신흥국 경제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남미는 1970년 중반부터 불안한 감이 있었다. 아르헨티나 때문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페론주의’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해 재정이 급속도로 훼손된 바 있다. 다만 이때는 아르헨티나에 국한된 문제였다.

중남미 금융위기는 1982년 8월부터 확산됐다. 당시 에르조그 멕시코 재무장관이 90일간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게 위기의 시발점이다. 멕시코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2차 오일쇼크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자 폴 볼커 미 연준의장이 기준금리를 20%로 올렸던 게 멕시코에 화근으로 작용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였다. 중남미 16개국은 순차적으로 선진국 정부와 은행들에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만기를 단축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리파이낸싱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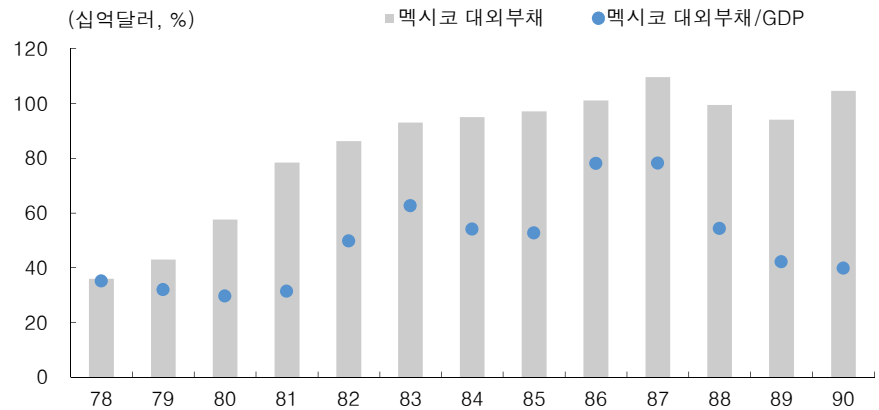
1982년 당시 멕시코는 대외부채가 863억달러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외채 규모는 GDP의 50%에 달했다. 다른 중남미 국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국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IMF는 채무 재조정, 정부지출 축소, 금융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고 중남미 국가는 울며 겨자먹기로 IMF의 조건을 수용했다. 그 결과 위기는 진정됐지만 경기침체와 실업증가라는 문제는 피하지 못했다.

중남미 금융위기는 1982년부터 7년간 진행됐고, IMF는 그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채무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베이커플랜과 외채 삭감에 집중하는 브래디플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IMF의 구제안은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이후에도 다시 한번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김대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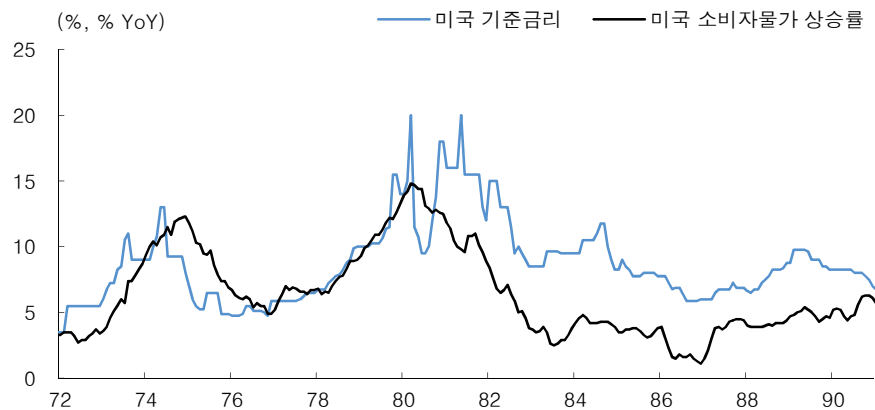
daejun.kim@truefriend.com

[그림 1] 멕시코의 대외부채와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



자료: World Bank,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미국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QNB 정기예금 ABCP와 대터키 간접 익스포저

터키에 대한 직접 익스포저는 작으나 간접 익스포저는 예상보다 클 가능성  
QNB는 자산의 15%, 여신의 13%대가 터키와 관련  
국내 유통 QNB 정기예금 ABCP 규모가 커서 MMF 영향 모니터링 필요

## QNB 정기예금 ABCP 규모 커서 MMF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대터키 익스포저는 12.2억달러(18년 3월 말 기준)에 불과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거래 영향도 철강,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에 한정되어 있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가증권 형태의 익스포저는 터키 국채 외에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이 발행한 리라화 표시 채권이 국내 판매되었으나,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대터키 익스포저에 노출된 채권은 예상보다 규모가 큰 수준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QNB(Qatar National Bank)는 터키 5대 민영은행인 Finansbank를 2016년 인수했다. 그 결과 QNB 자산의 15%, 여신의 13%대가 터키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로, QNB가 카타르 다음으로 익스포저가 큰 국가가 터키다. 터키의 금융불안 현상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QNB의 자산건전성에 상당한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며 유럽 은행 등 서방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활동 등에 있어서의 제약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카타르 소재 은행(QNB, Doha Bank 등)이 국내에서 발행한 정기예금 ABCP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로 QNB가 발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대터키 익스포저는 채권 형태로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QNB의 자산건전성 훼손이 심각할 경우 카타르(글로벌 신평가 신용등급 AA-) 정부의 QNB 지원 가능성이 있어, QNB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국내에 풀린 QNB 정기예금 ABCP 규모가 상당히 커서 터키의 금융불안 양상이 계속된다면 QNB 정기예금 ABCP가 주로 편입된 MMF 등 국내 채권시장이 일정수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터키 금융시장 상황 및 QNB의 대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김기명

kmkim@truefriend.com

김문수

moonsookim@truefriend.com

# Bond Portfolio Consul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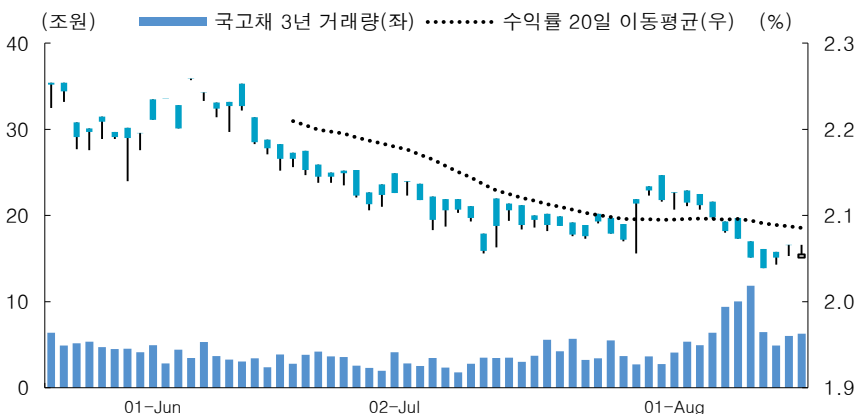
국내 채권금리는 세계경제 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추세 전환 우호적인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의 걱정범위 하단 도달로 금리수준 부담 Jackson Hole Meeting을 기점으로 다시 국내외 통화정책 경계감 부각 가능성 유의

## 국내 금융시장 불안 vs. 미국 잭슨홀 회의

최근 국내 채권금리는 다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 국고채 3년 수익률은 연중 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하락 추세 과열에 따른 반등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채권금리는 시장추세 지표가 기준치(=0)를 상회하며, 일시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채권금리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채차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미국 채권금리 하락세 및 국내 장단기 금리차 축소 등도 국내 채권금리 하락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호적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금리는 금리 수준이 부담이다. 현재 국고채 3년 수익률은 향후 1회(0.25%p) 가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걱정범위가 2.05~2.20%로 추정됨에 따라 채권금리는 걱정수준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23~25일에 예정된 미국 Jackson Hole Meeting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관련 언급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월말에 예정된 국내 8월 금융통화 위원회의에서도 연내 금리인상 시사 여부가 주목되므로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다시 국내외 통화정책 경계감 부각에 유의해야 하겠다.

[그림 1] 국고채 3년 수익률 vs.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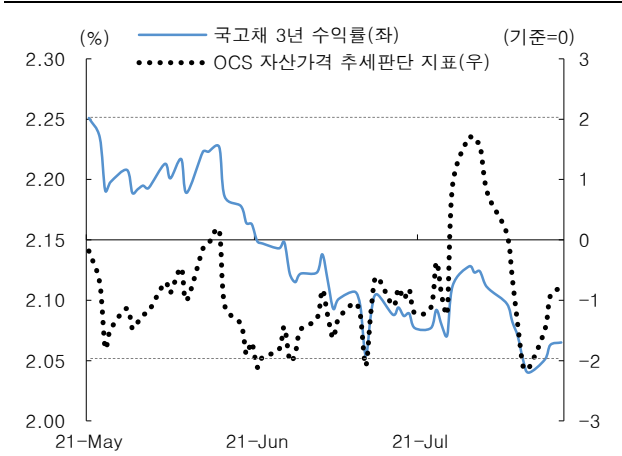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오창섭  
changsob@truefrie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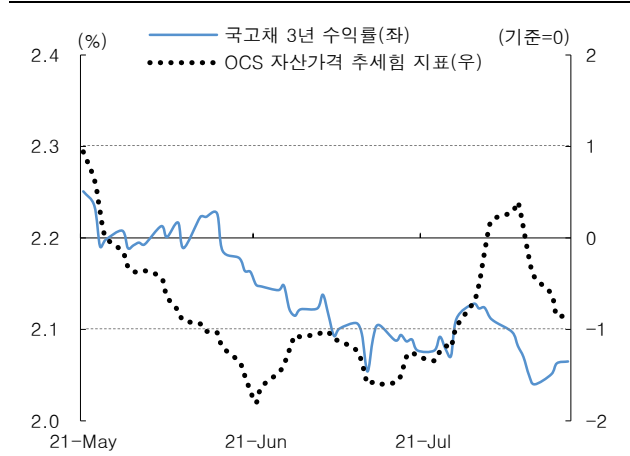
### <채권투자 전략지표 Key Chart>

[그림 2] 국고채 3년 수익률 vs. 추세판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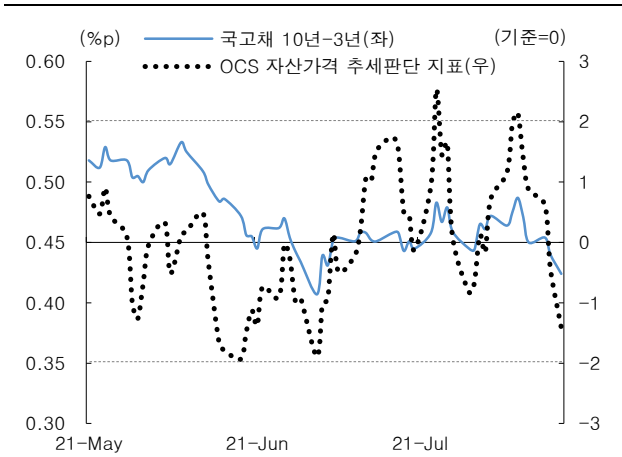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국고채 3년 수익률 vs. 추세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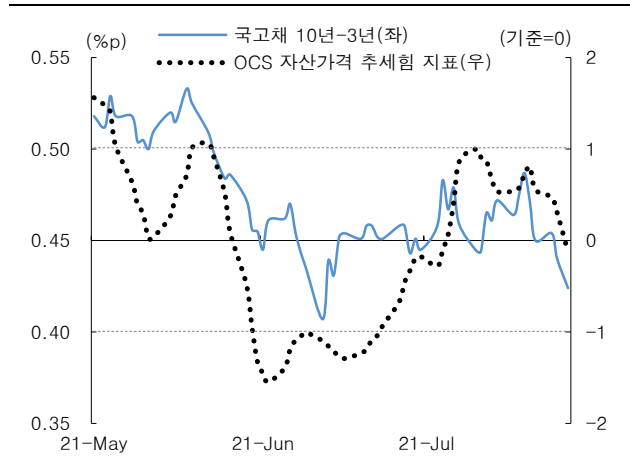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국고채 10년-3년 금리차 vs. 추세판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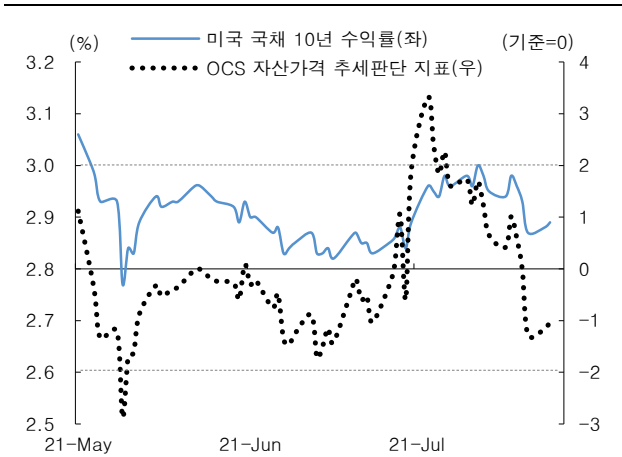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5] 국고채 10년-3년 금리차 vs. 추세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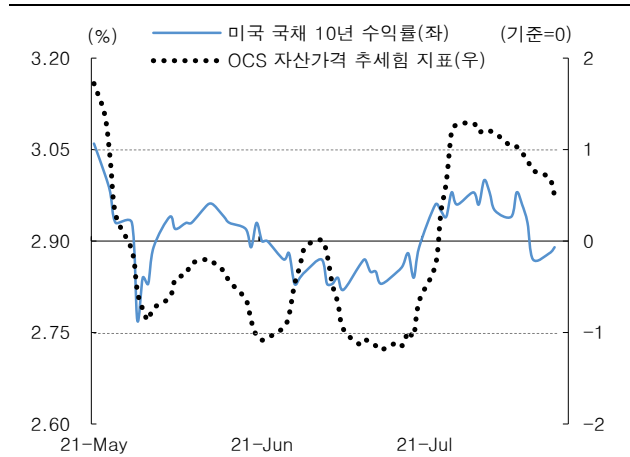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vs. 추세판단 지표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7]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vs. 추세힘 지표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I. 채권 포트폴리오 전략

##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 축소

국내 채권금리가 적정범위 하단에 도달함에 따라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 축소를 제안한다. 최근 국내 채권금리는 세계경제 불확실성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다시 연간 저점 하회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 발생 등으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채권금리가 연저점을 하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미국 Jackson Hole Meeting을 기점으로 재차 국내외 통화긴축 경계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금리 반등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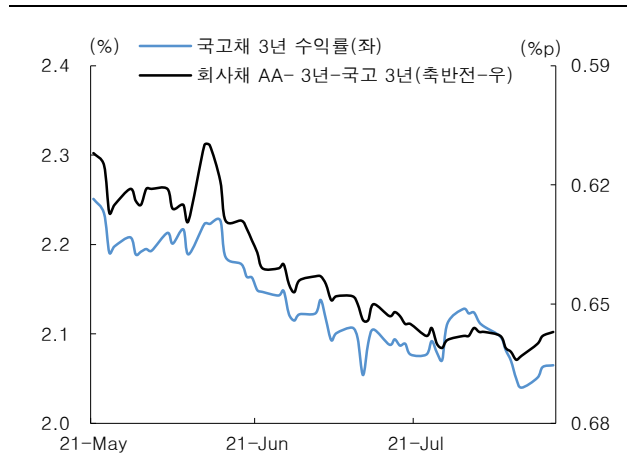
##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

세계경제 불확실성 부각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이 나타났다. 터키 금융시장은 대규모 대외부채 및 외환보유고 부족과 함께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가중되며 금융위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리라화는 한때 1달러당 7.24리라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터키의 경제규모가 세계 18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터키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중국 무역갈등 지속 등도 세계경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1].

## 국내 채권금리 다시 하락추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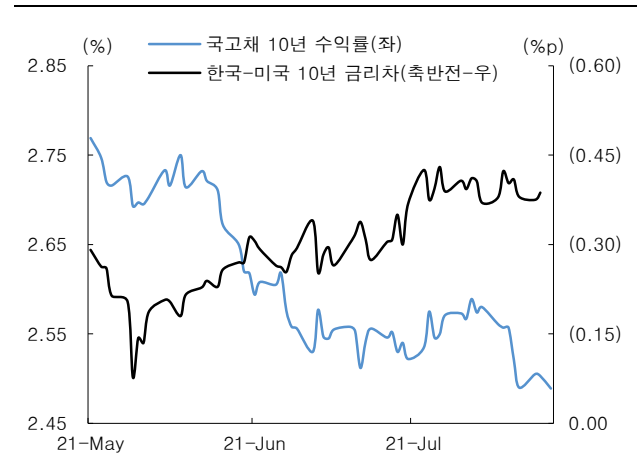
최근 국내 채권금리는 다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 국고채 3년 수익률은 연중 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하락 추세 과열에 따른 반등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채권금리는 시장추세 지표가 기준치(=0)를 상회하며, 일시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채권금리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재차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미국 채권금리 하락세 및 국내 장단기 금리차 축소 등도 국내 채권금리 하락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2~7].

[그림 8] 국고채 3년 vs. 회사채 AA- 3년 금리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9] 국고채 10년 vs. 한국-미국 10년 금리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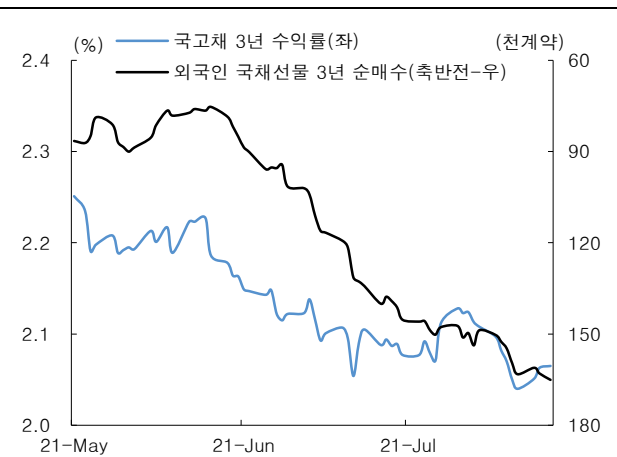
## II. 국내외 채권시장 요인분석

〈표 1〉 채권시장 요인분석

구분	내용	평가 (기준=0)
경기여건	〈7월 수출개선 vs. 고용부진 상충〉 : 7월 들어 수출은 전년대비 6.2% 증가를 기록해 한국경제 경기둔화 우려 완화(조업일수 감안 수출증가율 4.0%). 그러나 7월 고용지표에서는 실업급여가 크게 증가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제조업 경기부진 등으로 경제구조 및 경기여건 측면에서 부담요인 지속 시사	0
통화정책	〈미국 Jackson Hole Meeting〉 : 8월 23~25일 기간에 미국 Kansas City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 주제는 '시장구조 변화와 통화정책 시사점'으로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 및 유명 경제학자들이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통화긴축 관련 언급 가능성 주목	-1
수급여건	〈국내 채권시장 수급여건 호조〉 : 외국인 투자자는 6월 중반 이후 9주 연속 3년 국채선물 순매수 기록. 국내 채권펀드 수탁고는 지난 2분기 이후 투자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연간 순유입 6조 3,000억원 가량). 8월 국고채 발행물량 감소 및 조기상환 물량 확대 등도 전반적으로 채권수급에 호재	+1
금융시장 동향	〈미국 채권금리 상승국면 진행〉 : 최근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은 3%대 진입을 시도하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향후 미국 채권시장은 Jackson Hole Meeting을 앞두고 통화긴축 경계감이 부각되는 가운데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채권금리 상승압력 예상	+1
금리수준	〈국고채 3년 적정범위 2.05~2.20%〉 : 현재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1.50% 수준에서 통상적인 국고채 3년-기준금리 격차 0.30%p 및 1회 가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0.25%p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국고채 3년 2.05% 수준) 그리고 한국과 미국 채권금리 역전(미국>한국) 부담은 채권금리 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	-1
기타요인	〈세계경제 불확실성 부각〉 : 터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파급. 터키 경제여건은 대규모 외화부채 및 외환보유고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취약성과 함께 미국과 정치적 갈등으로 금융위기 가능성 점증. 또한 미국-중국 무역갈등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1
종합평가	〈국내 채권금리 하락국면 재개〉 : 현재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국면 재개. 최근 국내 채권금리는 적정범위 하단에 도달함에 따라 하방경직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터키 금융위기 우려 등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를 견인하며 금리하락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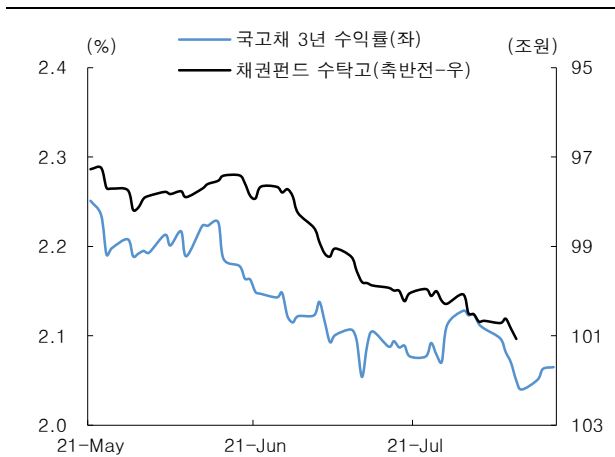
주: 중립(0), 호재(+1~+2), 악재(-1~-2)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국고채 3년 vs. 외국인 국채선물 3년 순매수



주: 외국인 국채선물 3년 순매수는 2018년 누적 규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국고채 3년 수익률 vs. 채권펀드 수탁고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III. 국내 채권금리 동향

#### 국내 채권금리 연저점 하향돌파 시도

국내 채권금리는 다시 연저점 하향돌파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 국고채 3년 수익률은 연초 저점인 2.10% 수준을 하회하며, 한때 2.05%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현재 국고채 3년 수익률은 향후 1회(0.25%p) 가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적정범위는 2.05~2.20%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금리/원화가치 모두 연중 최저치 경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를 나타낸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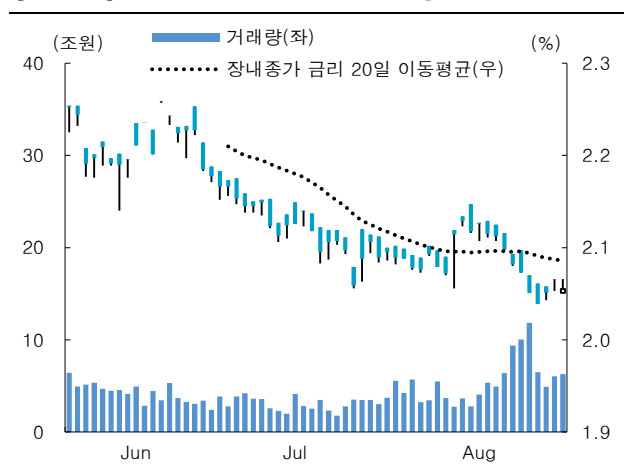
#### 국내 장단기 금리차 축소국면 전개

채권금리를 선행하는 국내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축소되는 모습이다. 국고채 10년과 3년 금리차는 6월을 기점으로 축소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7월 들어 0.40%p 수준을 저점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이것은 국내 채권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 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금리 하락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국고채 10년과 미국 국채 10년 금리차가 다시 -0.30%p대 중반으로 축소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장기금리의 하락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그림 9, 13, 43].

#### 시장내재 시나리오 지표는 채권금리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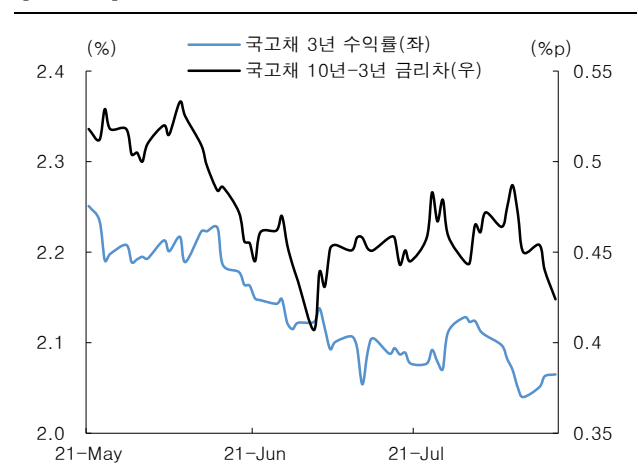
시장추세 및 변수간 상관관계를 반영한 시나리오는 채권금리 하락을 예상한다. 변수의 시차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시장추세의 경우 미국 채권금리는 향후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내 주가 및 유가는 하락이 예상된다(원/달러 환율은 횡보). 또한 국내 채권금리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국내 주가·미국 채권금리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유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종합할 때 상관관계 상 현재의 채권금리 하락세에는 국내 주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4~19].

[그림 12] 국고채 3년 수익률 vs. 거래량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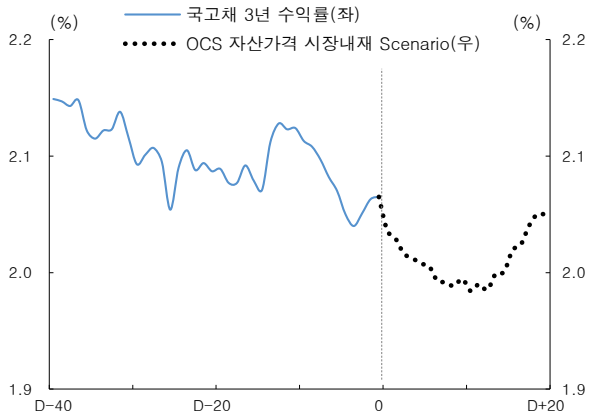
[그림 13] 국고채 3년 vs. 국고채 10년-3년 금리차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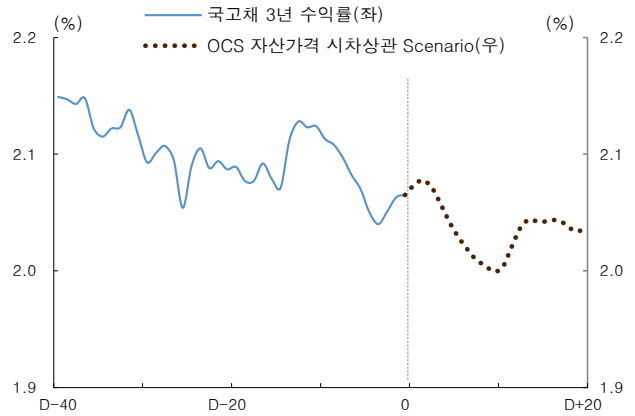
### <시장내재 자산가격 Scenario>

[그림 14] 국고채 3년 수익률 시장내재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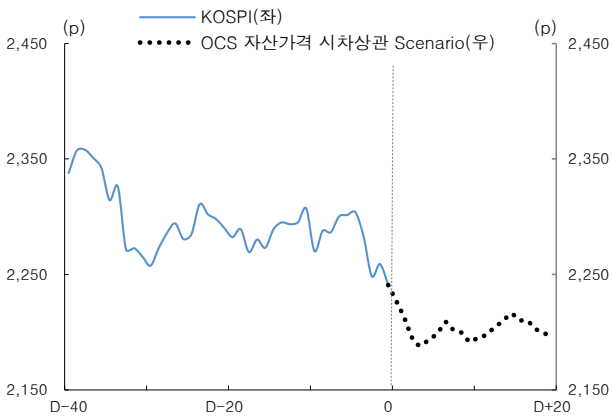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국고채 3년 수익률 시차상관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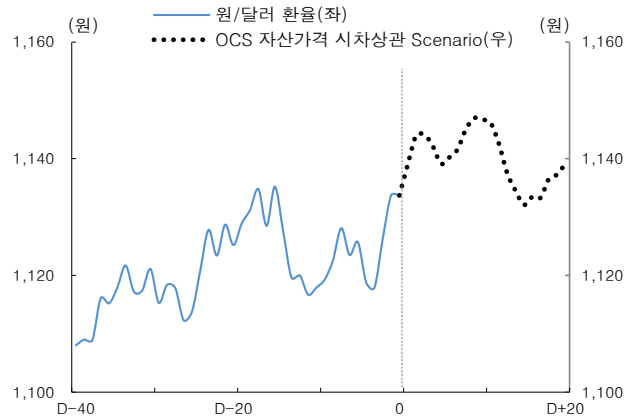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KOSPI 시차상관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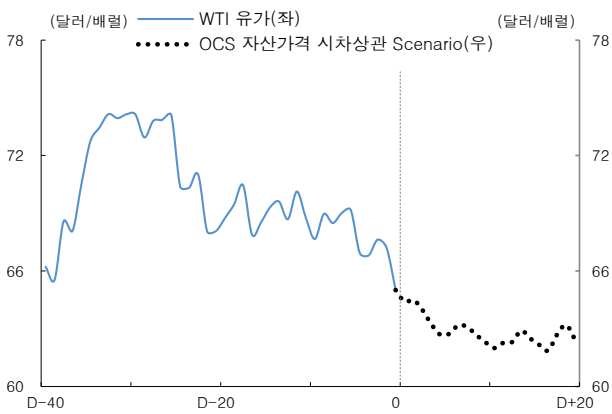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원/달러 환율 시차상관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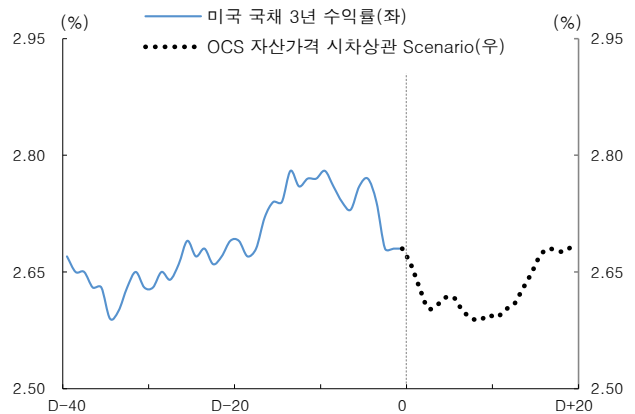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WTI 유가 시차상관 Scenario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미국 국채 3년 시차상관 Scenario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터키발 금융불안과 미중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 속 하락

- 뉴욕증시는 터키 금융시장 불안과 신흥시장으로의 확산 우려에 일제히 하락. 겹하락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감에 장 초반 2,220P선이 무너지며 급락했으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기대감에 오후 들어 낙폭을 다소 줄이며 2,240P로 마감. 코스닥도 장 초반 2% 이상 폭락하며 743P까지 하락했으나 외국인인 순매수로 돌아서고 개인 매수로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약보합세로 마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해 무역 문제를 협상한다고 밝힘. 이에 양국간 무역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경제지표 부진에 이들 연속 급락했던 중국 증시도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낙폭을 줄이며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부광약품의 경구용 표적항암제인리보세라닙(아파티닙)과 관련된 계약상 지위, 권리 및 의무 일체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하반기 생산시설 증설 효과 전망에 후성이 강세를 보임. 국내에서 유일하게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된 LG 유플러스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2분기 실적 호조 및 하반기 실적 개선 지속 전망에 JYP Ent., 에스엠, 와이즈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3인방이 일제히 급등.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고, 올해 안에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을 것이라고 밝히며 철도 관련주를 비롯해 기계, 농업 등 경험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최근 디젤 게이트에 이어 BMW 사태까지 디젤차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며 대안으로 전기차가 부상하며 시장 확대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반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71.4%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실망감에 오리온이 10% 이상 급락했으며,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검토 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데코앤이, 디센스, 에스마크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용
<b>엔터주</b>	<p><b>2분기 실적 호조 및 자사주 취득 결정에 급등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엠이 2분기 연속 1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JYP Ent.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 확대 등에 따른 실적 개선 지속 기대감에 강세</li> <li>- 이매진아시아(036260, +8.25%), JYP Ent.(035900, +8.21%), 와이즈엔터테인먼트(122870, +7.05%), 에스엠(041510, +6.30%), 에프엔리퍼블릭(064090, +2.94%) 등 강세</li> </ul>
<b>섬유의복주</b>	<p><b>2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mp;F, 영원무역, 한세실업, 힐라코리아,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업종 대표 종목들의 2분기 실적 호조 및 하반기 실적 개선 지속 기대감에 강세</li> <li>- 힐라코리아(081660, +8.88%), 좋은사람들(033340, +5.78%), 영원무역(111770, +5.33%), F&amp;F(007700, +4.90%), 신세계인터내셔널(031430, +4.76%), 인디에프(014990, +3.84%), 한세실업(105630, +3.41%) 등 강세</li> </ul>
<b>대북 경험주</b>	<p><b>문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에 강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는 등 남북 경험 기대감에 철도, 건설, 전기, 기계 등 관련주 강세</li> <li>- 화성밸브(039610, +26.82%), 선도전기(007610, +18.95%), 디케이락(105740, +18.33%), 남화토건(091590, +12.66%), 제통전기(033100, +10.19%), 동아지질(028100, +9.40%), 현대로템(064350, +7.14%) 등 강세</li> </ul>
<b>전기차 관련주</b>	<p><b>전기차 대중화 기대감에 강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디젤 게이트에 이어 BMW 사태까지 디젤차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며 대안으로 전기차가 부상. 이에 따른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강세</li> <li>- 신흥에스씨(243840, +10.33%), 피앤이솔루션(131390, +7.86%), 상신이디피(091580, +7.34%), 일진머티리얼즈(020150, +6.98%), 에스피지(058610, +6.14%), 삼화콘덴서(001820, +5.89%) 등 강세</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b>아세아제지(002310)</b> ▶40,200 (+2.55%)	- 2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044.2% 급증했으며, 연결기준으로 흑자전환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 단기 유망종목: 와이슬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와이슬 (122990)	16,300 (-7.1)	17,5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기존 2GHz 이하에 이용됐던 표면탄성필터(SAW)에 더해 고주파를 선별하는 벌크탄성파필터(BAW)가 추가되어 동사 필터 사업부문의 수혜 전망</li> <li>- SK텔레콤의 IoT 전용망 모듈 납품자로 선정됨에 따라 커넥티드 수요 증가로 IoT모듈 사업부문의 수혜 및 모듈 신사업에서의 성장 기대</li> </ul>
디지털대성 (068930)	4,540 (+0.8)	4,50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에서의 르네상스러닝 콘텐츠 독점 판매권 확보로 4분기부터 매출 본격화 전망</li> <li>- 2012년 비상예뮬 인수 이후 현금성자산을 이용한 M&amp;A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li> <li>-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실적 성장으로 올해 최대 실적 전망</li> </ul>
정성제이엘에스 (040420)	7,220 (+0.4)	7,190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부문과 해외 교재 매출이 증가하며 지속적인 외형성장 전망</li> <li>- 수학부문에서의 외형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기대</li> <li>- 배당수익률 6%에 육박하는 고배당 매력 보유</li> </ul>
한국전자금융 (063570)	13,100 (+15.4)	11,350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무인자동화기기와 무인주차장의 수요 증가 전망</li> <li>- ATM 관리 과점 사업자로 ATM기기 감소 추세에도 은행의 아웃소싱 비중이 낮아 향후 동사의 시장 확대 가능성 유효</li> <li>- 국내 1위 CD VAN 사업자인 BGF핀링크를 흡수합병하고 매출이 확대됨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확대 전망</li> </ul>
매일유업 (267980)	87,100 (-3.1)	89,900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수익 제품 비중 상승, 원유 손실 축소로 유가공 마진 개선 지속</li> <li>- 중국향 분유 수출은 바닥 통과 후 점진적인 개선 진행 중</li> <li>- 작년 2분기는 사드 영향으로 수출 분유의 기저가 낮아서 2분기 실적 개선 예상</li> </ul>
LG이노텍 (011070)	146,500 (+1.4)	144,500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플이 올해 8~9월부터 신모델 3종을 출시할 예정으로 매출액과 이익이 빠르게 반등할 전망</li> <li>- 신기술 카메라모듈 탑재가 지난해 1종에서 올해는 3종으로 늘어나고 출시 시기도 빨라져 광학사업부 수혜 예상</li> <li>- 스마트폰 내 신기술카메라모듈 채용률이 지난해 15%, 올해 59%, 내년 93%까지 상승할 전망</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LG이노텍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공급자(LP)입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현대백화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현대백화점 (069960)	960,000 (-1.3)	97,300 (8/2)	1,880	406	287	12,705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품 소비 증가로 기존점 매출액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li> <li>- 12월 천호점 그랜드 오픈 및 11월 무역센터점 면세점 오픈 등에 따라 이익 모멘텀 확대 전망</li> <li>- 본업 호조와 신규 사업으로 이익 모멘텀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li> </ul>
하츠 (066130)	4,765 (+3.4)	4,610 (7/4)	112	7	6	495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공기청정기 시장과 다른 환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위해 공기청정 기능과 환기기능을 동시에 갖춘 환기청정기 제품 개발</li> <li>- B2B 고객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B2C 공략을 위해서 하츠몰, 하츠앱, 소셜커머스, 하이마트로 판매 채널 확장</li> <li>-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실내 공기질 종합 관리 기업인 동시에 대한 수혜 전망</li> </ul>
테스 (095610)	20,350 (-10.5)	22,750 (7/3)	338	77.0	62.6	3,218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램 미세화공정과 3D낸드 적층수 증가의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안정화된 기존 공정에 장비투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li> <li>- 국내 메모리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64% 증가하면서 테스의 2018년 매출액도 전년 대비 23% 증가할 전망</li> <li>- 국내 증착장비업체들의 장비군 확대를 통한 점유율 상승과 중장기 성장스토리는 지속될 전망</li> </ul>
신대양제지 (016590)	88,900 (+14.6)	77,600 (6/28)	688	103	76	18,962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5억원(+25.6% QoQ, +419% YoY)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이익 창출 예상</li> <li>- 미국의 수출 지역인 중국과 동남 아시아 시장으로 한국 골판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상존</li> <li>- 지배순이익이 peer그룹인 무림P&amp;P(160억원) 대비 불과 5% 적지만 시가총액은 무림P&amp;P의 절반에 불과한 염가 구간</li> </ul>
포스코강판 (058430)	21,950 (-2.9)	22,600 (5/30)	944	25	23	3,757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연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 예상</li> <li>-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3분기부터 컬러강판 생산능력 증가 전망</li> <li>- 냉연 스프레드 사이클의 저점으로 판단되며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ul>
삼성전기 (009150)	140,500 (+21.6)	115,500 (4/13)	8,016	702	427	5,656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부품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 호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혜국면 지속 전망</li> <li>- 삼성전자의 듀얼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 전망</li> <li>- 내년 갤럭시S10에 3D센싱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이와 관련한 모듈 제작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기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된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8/16(목) 종가	등락률(%)			
		1D	5D	1M	YTD
KOSPI	2,240.80	(0.80)	(2.73)	(2.66)	(9.19)
KOSPI200	288.24	(0.98)	(3.08)	(3.07)	(11.24)
대형주	2,149.33	(0.98)	(3.16)	(2.81)	(11.15)
중형주	2,623.95	(0.10)	(0.67)	(1.89)	(4.07)
소형주	2,130.11	0.33	(0.83)	(1.73)	4.75
KOSDAQ	761.18	(0.10)	(3.58)	(7.82)	(4.66)
KOSDAQ150	1,252.37	(0.08)	(3.47)	(10.04)	(11.42)

수급	8/16(목)	1D	5D	1M	YTD
거래량	KOSPI	307	300	277	434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562	573	573	907
거래대금	KOSPI	5,871	5,584	5,271	7,100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3,690	3,632	3,448	5,708

(단위: %, bp)

금리	8/16(목)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06	0.80	(2.20)	(4.20)	(7.40)
국고채 5년물	2.29	0.80	(4.00)	(5.50)	(6.20)
국고채 10년물	2.50	(0.20)	(6.20)	(6.20)	2.80
회사채 3년(AAA-)	2.46	0.80	(5.40)	(13.20)	(8.90)
회사채 3년(BBB-)	8.46	0.80	(5.40)	(13.90)	(32.40)

(단위: 원, %)

외환	8/16(목)	1D	5D	1M	YTD
원/달러	1130.0	0.19	(1.16)	(0.08)	(5.54)
원/100엔	1020.4	0.27	(1.17)	(1.49)	(7.21)
원/유로	1284.9	(0.09)	0.91	2.74	(0.68)
원/위안	163.8	(0.10)	0.10	3.00	0.16

업종 지수	8/16(목)	등락률(%)			
		1D	5D	1M	YTD
<b>KRX 업종 지수</b>					
자동차	1,487.26	1.25	0.27	2.18	(14.53)
반도체	2,342.58	(0.35)	(5.45)	(9.76)	(15.85)
헬스케어	3,740.19	(1.17)	(5.01)	(9.66)	(2.73)
은행	833.21	(0.53)	(1.56)	(3.57)	(11.06)
에너지화학	2,538.27	(0.31)	(0.44)	2.85	(8.18)
철강	1,646.05	(1.73)	(3.46)	1.78	(19.82)
방송통신	1,055.92	1.40	1.86	5.84	2.87
건설	651.75	(0.21)	0.91	4.12	16.20
증권	615.46	(0.76)	(4.75)	(9.93)	(13.62)
기계장비	548.13	(0.89)	(0.91)	5.21	2.42
보험	1,642.77	(0.40)	(2.26)	1.88	(15.15)
운송	543.31	(0.32)	(2.24)	(1.97)	(6.48)
유틸리티	1,205.19	(0.74)	(0.84)	(4.33)	2.34

업종 지수	8/16(목)	등락률(%)			
		1D	5D	1M	YTD
<b>KOSDAQ150</b>					
기술주	1,494.44	(0.31)	(4.33)	(11.85)	(12.88)
소재	1,374.77	2.33	(1.61)	(0.58)	(12.46)
산업재	250.96	0.97	(0.29)	(1.62)	(19.78)
필수소비재	743.19	0.42	(2.13)	(14.69)	(27.26)
자유소비재	1,317.05	(0.69)	(0.65)	(3.35)	12.65
정보기술	612.70	(0.47)	(4.13)	(9.09)	(19.25)
생명기술	4,045.03	(0.72)	(5.41)	(14.24)	(14.13)
문화기술	2,353.58	3.39	3.67	(4.28)	5.26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2,784	1,793	1,271	331	108	143	147	15	142	379	110
	매도	2,606	2,035	1,264	293	93	157	172	15	191	350	40
	순매수	178	(242)	(7)	38	15	(14)	(25)	(0)	(49)	30	70
	2018년 8월 누계	422	(80)	(733)	49	(27)	(95)	81	3	(662)	(83)	390
	2018년 누계	7,688	(3,488)	(5,208)	(2,718)	(608)	253	(777)	(199)	(703)	(456)	1,008
코스닥	매수	3,046	399	200	51	15	38	69	3	24	22	21
	매도	3,100	363	221	50	11	41	59	2	26	12	24
	순매수	(54)	36	21	1	4	(3)	10	1	(2)	10	(4)
	2018년 8월 누계	468	(134)	(283)	(139)	(16)	(34)	(82)	(3)	(10)	(0)	(51)
	2018년 누계	3,356	(685)	(748)	198	93	244	(1,104)	(124)	(145)	90	(1,922)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기계	267	통신서비스	(272)	통신서비스	702	반도체	(1,593)
	IT가전	118	건설,건축관련	(150)	자동차	240	소프트웨어	(298)
	은행	117	반도체	(131)	화장품,의류,완구	144	철강	(243)
	디스플레이	114	소매(유통)	(110)	에너지	68	필수소비재	(214)
	에너지	74	증권	(100)	유틸리티	25	기계	(202)
종목	현대로템	293	LG유플러스	(203)	SK텔레콤	418	삼성전자	(801)
	KODEX 200선물인버스2X	163	SK하이닉스	(186)	LG유플러스	271	SK하이닉스	(709)
	카카오	134	KODEX 레버리지	(175)	휠라코리아	145	넷마블	(261)
	LG디스플레이	113	SK텔레콤	(173)	기아차	95	POSCO	(227)
	KT	103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52)	현대차	93	현대로템	(207)
	KODEX 인버스	85	넷마블	(130)	NAVER	86	셀트리온	(155)
	일진머티리얼즈	78	현대건설	(75)	S-Oil	79	엔씨소프트	(134)
	LG화학	78	삼성생명	(71)	GS건설	76	LG화학	(133)
	삼성전자	78	롯데쇼핑	(71)	금호석유	64	롯데쇼핑	(121)
	신한지주	75	NAVER	(67)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59	삼성전기	(110)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미디어,교육	357	소프트웨어	(123)	건강관리	180	기계	(40)
	비철,목재등	29	건강관리	(23)	IT하드웨어	69	호텔,레저서비스	(39)
	디스플레이	23	IT하드웨어	(16)	반도체	68	건설,건축관련	(35)
	에너지	13	반도체	(15)	미디어,교육	63	비철,목재등	(22)
	기계	8	호텔,레저서비스	(13)	조선	37	디스플레이	(16)
종목	에스엠	138	메디톡스	(97)	셀트리온헬스케어	70	대아티아이	(34)
	JYP Ent.	100	펼어비스	(86)	에스엠	50	파라다이스	(29)
	스튜디오드래곤	59	카페24	(54)	JYP Ent.	45	펼어비스	(2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56	위닉스	(40)	솔브레인	43	카카오M	(24)
	오스코텍	35	비에이치	(31)	에이치엘비	33	제룡전기	(23)
	카카오M	33	피엔티	(27)	신라젠	31	휴젤	(21)
	엘앤에프	31	유니테스트	(18)	비에이치	22	포스코캠텍	(21)
	포스코캠텍	25	울릭스	(18)	위메이드	22	RFHIC	(17)
	코스메카코리아	24	아난티	(13)	아프리카TV	22	스튜디오드래곤	(17)
	신라젠	22	NEW	(12)	에이치엘비생명과학	20	디케이락	(15)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284,055	44,250	(1.99)	(13.17)
SK하이닉스	54,382	74,700	(1.58)	(2.35)
셀트리온	32,415	258,500	(0.96)	16.92
삼성바이오로직스	29,113	440,000	(3.51)	18.60
POSCO	27,333	313,500	(2.64)	(5.71)
현대차	27,029	126,500	2.85	(18.91)
LG화학	25,943	367,500	(1.47)	(9.26)
NAVER	24,722	750,000	(0.92)	(13.79)
삼성물산	23,047	121,500	(1.62)	(3.57)
현대모비스	22,632	232,500	1.09	(11.60)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2,548	89,300	3.24	(17.77)
CJ ENM	5,464	249,200	(1.85)	7.88
신라젠	4,007	57,500	0.88	(38.50)
메디톡스	3,575	632,000	(5.81)	30.34
나노스	3,573	7,280	1.39	213.12
에이치엘비	3,175	83,000	0.73	114.75
바이로메드	3,091	193,700	(2.12)	18.62
펼어비스	3,062	237,800	(3.49)	(3.96)
스튜디오드래곤	2,952	105,300	1.54	62.00
포스코캠텍	2,945	49,850	4.18	25.25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08.32	(1.10)	(2.55)	(1.21)	(0.92)	
	MSCI 선진국	2,115.70	(1.01)	(2.22)	(0.80)	0.58	
	MSCI 신흥국	1,023.43	(1.83)	(5.12)	(4.37)	(11.66)	
DM	S&P500	2,818.37	(0.76)	(1.38)	0.71	5.41	
	Dow Jones	25,162.41	(0.54)	(1.65)	0.39	1.79	
	Nasdaq	7,774.12	(1.23)	(1.45)	(0.40)	12.61	
	Russell 2000	1,670.67	(1.29)	(0.96)	(0.47)	8.80	
	영국 FTSE 100	7,538.46	0.54	(2.63)	(0.82)	(1.94)	
	프랑스 CAC	5,328.99	0.45	(3.15)	(1.49)	0.31	
	독일 DAX 30	12,203.34	0.33	(3.73)	(2.85)	(5.53)	
	스페인 IBEX	9,435.10	0.51	(3.28)	(2.90)	(6.06)	
	일본 니케이	22,192.04	(0.05)	(1.80)	(1.79)	(2.52)	
	홍콩 항셱	27,100.06	(0.82)	(5.27)	(5.04)	(9.42)	
	EM	코스피	2,240.80	(0.80)	(2.64)	(3.03)	(9.19)
		코스닥	761.18	(0.10)	(2.89)	(8.06)	(4.66)
		중국 상해종합	2,705.19	(0.66)	(3.19)	(3.87)	(18.20)
홍콩 H지수		10,479.68	(0.53)	(4.90)	(2.10)	(10.50)	
인도 Sensex		37,757.79	(0.25)	(0.34)	3.33	10.87	
베트남 VN		964.28	0.30	0.08	5.84	(2.03)	
인도네시아 JCI		5,783.80	(0.56)	(4.64)	(2.06)	(9.00)	
러시아 RTS		1,065.73	0.99	(2.88)	(9.73)	(7.68)	
브라질 Bovespa		77,077.99	(1.94)	(2.62)	0.55	0.88	
멕시코 Mexbol		48,556.69	(1.10)	(2.68)	0.21	(1.62)	
글로벌 업종	에너지	173.53	(0.02)	(4.07)	(3.76)	(0.54)	
	소재	193.63	(0.18)	(5.03)	(4.22)	(10.27)	
	산업재	266.34	(0.03)	(2.89)	(1.72)	(8.87)	
	경기소비재	245.98	(0.02)	(2.57)	(3.19)	(7.26)	
	필수소비재	299.21	(0.08)	(1.42)	(1.01)	(0.12)	
	헬스케어	584.96	0.07	(0.51)	1.17	10.75	
	금융	168.65	0.18	(2.86)	(1.22)	(7.35)	
	IT	402.11	(0.03)	(1.78)	0.10	10.66	
	통신서비스	166.44	0.18	(1.33)	0.36	(6.06)	
	유틸리티	165.34	0.08	(1.45)	(1.64)	(3.12)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증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6.50	(0.20)	1.05	2.11	4.75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25.58	0.78	1.10	1.71	5.46
미주	브라질	3.91	(0.98)	(3.41)	(1.15)	(15.18)
	멕시코	19.11	0.13	(2.20)	(1.54)	2.85
아시아	한국	1,130.00	0.19	(1.16)	(0.08)	(5.54)
	일본	110.78	(0.04)	0.27	1.36	1.72
	중국	6.90	0.48	(1.17)	(3.05)	(5.72)
	대만	1.38	(0.38)	1.47	2.12	7.43
유럽	인도	70.33	(0.62)	(2.34)	(2.50)	(9.18)
	유로존	1.14	0.26	(1.32)	(2.87)	(5.25)
	영국	1.27	0.05	(0.94)	(4.02)	(5.99)
	러시아	66.76	0.81	(0.14)	(6.65)	(13.59)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10Y)		(단위: bp)				
지역	국가	증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87	1.09	(5.26)	1.50	46.78
	캐나다	2.27	(5.00)	(9.20)	13.50	22.40
	브라질(USD)	11.63	(6.30)	22.10	23.40	137.80
유럽	멕시코	7.87	(4.30)	16.50	10.20	20.80
	독일	0.32	1.20	(5.90)	(4.70)	(11.10)
	영국	1.24	1.30	(5.80)	(4.20)	4.80
아시아	프랑스	0.67	0.20	(4.10)	2.10	(11.40)
	이탈리아	3.12	(4.60)	22.50	54.60	110.70
	러시아	5.06	1.70	(0.60)	54.90	119.00
	한국	2.50	(0.20)	(6.20)	(6.20)	2.80
중국	일본	0.10	0.10	(1.30)	6.20	5.40
	중국	3.61	1.80	5.90	11.60	(29.20)
	호주	2.56	(2.30)	(9.70)	(7.90)	(7.40)
	인도	7.86	4.50	10.90	6.20	53.7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증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45.12	(2.17)	(2.64)	(1.24)	0.61
	LMEX 지수	2,819.60	(3.96)	(6.55)	(5.42)	(17.53)
	CRB 지수	414.17	(0.92)	(2.50)	(4.80)	(4.20)
에너지	원유(WTI)	65.05	0.06	(2.63)	(4.42)	7.66
	원유(Brent)	70.84	0.11	(1.71)	(1.39)	5.94
	천연가스	2.94	(0.10)	(0.61)	6.45	(0.54)
금속	금	1,176.60	(0.08)	(2.91)	(5.09)	(10.14)
	은	14.65	1.32	(5.28)	(6.93)	(14.58)
	구리	5,801.00	(4.02)	(6.03)	(6.99)	(19.95)
	아연	2,300.00	(6.28)	(11.94)	(10.78)	(30.70)
농산물	알루미늄	2,025.00	(2.17)	(3.85)	(0.30)	(10.71)
	S&P 농산물 지수	289.72	(1.22)	(3.52)	4.90	2.69
	옥수수	379.00	0.80	(0.98)	6.69	(1.30)
	밀	558.00	1.13	(4.86)	10.71	15.77
대두	887.50	2.13	(1.83)	4.94	(9.04)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증가	1D	5D	1M	YTD
미국	VIX	14.07	(3.89)	24.84	9.66	27.45
유럽	VSTOXX	16.66	(9.84)	33.39	27.82	23.28
한국	VKOSPI	14.32	9.06	19.13	9.65	18.74

##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6	7	8	9	10
	韓> 실적발표: GKL, 덴티움	韓> 실적발표: CJ제일제당,컴투스 넷마블, 파라다이스  美> 실적발표: Disney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3.0%, n/a, -2.6%)  日> 6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1175.6, 1222.2, 1938.3)	韓> 실적발표: 이마트, 신세계, 카카오, 삼성화재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13, 220, 218) 6월 도매재고 MoM (0.1%, 0.0%, 0.0%)  中> 7월 PPI YoY (4.6%, 4.5%, 4.7%) 7월 CPI YoY (2.1%, 2.0%, 1.9%)  日> 7월 핵심기계수주 MoM (-8.8%, -1.0%, -3.7%)	韓> 실적발표: 삼성생명,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한화생명  美> 7월 CPI MoM (0.2%, 0.2%, 0.1%)  日> 7월 PPI YoY (3.1%, 2.9%, 2.8%) 2Q GDP SA QoQ (0.5%, 0.3%, -0.2%) 6월 3차 산업지수 MoM (-0.5%, -0.3%, 0.1%)
13	14	15	16	17
	韓> 실적발표: 농심, 휴온스, 팬오션, 삼성증권, 엔씨소프트  유럽> 2Q GDP SA YoY (2.2%, 2.1%, 2.1%) 8월 ZEW 서베이 (-11.1, n/a, -18.7)  中> 7월 광공업생산 YoY (6.0%, 6.3%, 6.0%)  日> 7월 광공업생산 MoM (-1.8%, n/a, -2.1%)	韓> 휴장(광복절)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0%, n/a, -3.0%) 7월 소매판매 추정 MoM (0.5%, 0.1%, 0.5%) 7월 광공업생산 MoM (0.1%, 0.3%, 0.6%)	韓> 실적발표: 금호타이어  美> 실적발표: Walmart, Cisco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15, 213) 7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73, 1173)	韓> 7월 실업률 (n/a, 3.7%, 3.7%)  美> 실적발표: Nvidia 7월 선행지수 (n/a, 0.4%, 0.5%)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97.9, 97.9)  유럽> 7월 CPI YoY (n/a, 2.1%, 2.0%)
20	21	22	23	24
		美> <b>FOMC 회의록 발표</b>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2.0%) 7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n/a, 5.43, 5.38)  日> 6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1%)	美> <b>적스홀 미팅(~25일)</b>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8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5.3) 7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650, 631)  유럽> 8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55.1) 8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0.6)	美> 7월 내구재주문 (n/a, 1.0%, 0.8%)  日> 7월 전국 CPI YoY (n/a, n/a, 0.7%)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